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복지 현장 꼼꼼히 살펴

- 2차관, 설 명절 전 에너지복지 지원을 받은 사회복지시설 방문
-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사업 2월 26일부터 주민센터에서 신청 접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최남호 2차관은 설 명절을 앞두고 대전 중구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 좋은이웃센터에 방문하였다.

이곳은 지난해 에너지복지사업인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 통해 단열공사가 이뤄진 곳으로, 최남호 2차관은 사업의 지원 성과를 확인하고 취약시설에서의 에너지 이용 과정에 대한 고민을 나누기 위해 방문하였다.

최남호 2차관은 “이 사업을 통해 단열공사 시공할 경우 20% 이상 에너지 효율이 좋아져 지속적인 에너지비용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이다. 장애인분들이 시설을 따뜻하게 이용하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하며,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어려우신 분들이 빠짐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복지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는 등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4년도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사업은 2월 26일 월요일부터 냉방 지원(고효율 에어컨 보급 지원) 신청 접수를 시작으로 2024년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특히 올해에는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냉방지원 500개소를 신설하는 등 사업 규모를 더욱 확대하였다. 사업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등 저소득 가구와 사회복지시설이며, 냉방 지원은 1.8만 가구와 500개 시설을 지원하고, 난방 지원(단열, 창호, 보일러 교체 지원)은 3.6만 가구와 250개 시설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 문의는 전담기관인 한국에너지재단(☎1670-7653)으로 문의하면 된다.

담당 부서	에너지정책관 에너지 효율지원팀	책임자	팀 장	박은표 (044-203-5160)
		담당자	사무관	오병주 (044-203-5164)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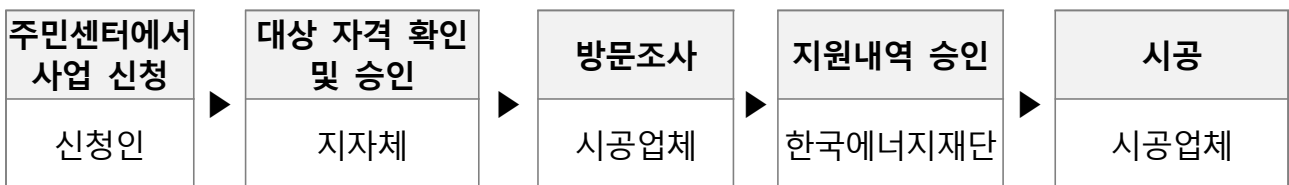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사업 개요

□ 2024년 사업 계획

- (목 적) 취약계층·시설에 연료비 절감 등 사용환경 개선을 위해 단열, 고효율 에어컨 등 에너지효율 개선을 지원
- (지원 규모) 총 1,057억원
-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등 저소득층 5.4만 가구, 사회복지시설 총 750개소
 - * 난방·냉방별 지원 규모: (난방) 3.6만 가구, 250개 시설 / (냉방) 1.8만 가구, 500개 시설
- (지원 내용) ^{난방}벽 단열, 창호, 바닥, 보일러, ^{냉방}고효율 에어컨
 - * 지원금액: (난방) 가구 240만원, 시설 1,100만원 / (냉방) 가구 75만원, 시설 400만원

□ 지원 절차

- 냉방 지원(2월 26일부터 신청)



- 난방 지원(3월 중순 이후 신청)



※ 문의처 : 저소득층에너지효율지원사업 콜센터 ☎ 1670-7653